

##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박 상 민

-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 2021년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

### I. 들어가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수기를 읽으며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의 합격 수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II. 수험기간 전반

#### 1. 2018. 1. ~ 2019. 6.

저는 군대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여 전역 후 응시하였으나 (2017년 초) 떨어졌습니다. 복학 후 계속 공부를 이어갔지만 제 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공부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학점 관리를 했습니다.

복학 후 학점이 잘 나오자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회계사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공부할 때 제 성향을 스스로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체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행정고시에 응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행정고시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신림동 고시촌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겨울에는 헌법 기본강의를 듣고, PSAT은 따로 준비하지 않은 채 1차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비록 '올림픽'으로 응시하였지만 저는 소위 'PSAT형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1학기에는 15학점을 들으면서 예비순환과 학교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진입할 당시 2학기는 휴학했고, 7월부터는 1순환을 들으며 2차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PSAT 강의도 틈틈이 들으며 대비했습니다. 2순환은 경제학과 행정법만 수강하였고, 12월부터는 PSAT에 집중했습니다. 스터디에 들어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노력과 운이 작용하여 딱 컷트라인과 동점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2019년 1학기도 역시 휴학했고, 3월부터 3순환을 들었습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워도 인내심을 갖고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행정법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모두 과락을 겨우 면하는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시였고 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시험 직후 별도의 휴식 기간 없이 바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 2. 2019. 7. ~ 2020. 9.

2019년 여름부터는 같은 과 동기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 답안 작성을 많이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학은 매일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말 제외) 50점 분량의 모의고사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정학이나 통계학 공

부도 같이 했으며, 행정법 모의고사도 작성했습니다. 2학기에는 6학점을 들으며 학교 공부는 최소화한 채 2차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스터디에 참여하여 답안 작성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전 1차 시험을 컷트라인으로 붙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2019년 12월부터 다시 PSAT에 집중했습니다. 12월에는 통계학 공부와 병행했고, 1월부터는 PSAT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1차 시험 3일 전, 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허탈하였지만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2차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1학기는 휴학했고, 이 시기 3월부터 5월까지의 제 수험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도서관이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낮에는 도서관에서 밤에는 고시촌 독서실에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공부는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학과 재정학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 5월로 1차 시험 날짜가 확정되자, 저는 시험일 3주 전부터 다시 PSAT 기출문제를 풀면서 대비했습니다. 결과는 1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자료해석에서 마킹 실수를 하여 쉬운 2문제를 틀림으로써 컷트라인 +1문제인 점수에서 컷트라인 -1문제인 점수가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제 가채점 점수를 보수적인 합격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컷트라인이 오르면서 1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전 시험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오히려 점수는 떨어졌기에 심리적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1차 시험에 떨어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할지, 과

연 이 길이 제 적성에 맞는 것인지 등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자취방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 고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전을 멈추는 것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회계사 시험을 접을 때와는 각오가 달랐습니다. 포기할 용기보다 계속 도전할 의지가 더 컸습니다. 결심이 서자, 다시 도서관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 시기부터는 본가에서 통학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하루에 4시간도 채 자리에 못 앉아 있었습니다. 잡념이 들어 집중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 하루하루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각오로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3. 2020. 9. ~ 2021. 11.

2020년 2학기에는 복학하여 15학점을 들었습니다. 고시 관련 과목들이었고,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2차 공부 병행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핸드북 암기 스테디, 답안 작성 스테디 등에 참여하며 12월까지 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직전 1차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를 고민해본 결과,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고 유형별 전략이 부족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시와 재시 때 이미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형별 전략만 잘 세우면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PSAT 준비를 과감하게 1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어논리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득점자로부터 과외를 받았습니다. 또한 스테디에 들어가 매일 전 과목을 1세트씩 풀고, 기출문제 대신 모의고사만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거의 다 외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았고 유형별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 대비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반신반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특성상 당일 컨디션에 의해 점수가 크게 좌우되는 점이 제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시험장에서 제 유형별 전략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 결과는 컷라인 +5문제로 넉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3순환을 수강하며 2차 시험에 대비하였고, 스테디에 참여하며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7월에 2차 시험을 응시하였고, 11월에는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Ⅲ. 과목별 공부방법

### 1. 제1차과목

#### (1) 헌법

저는 초시 때 기본강의만 듣고 그 이후로 따로 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했습니다. 교재는 주로 O/X 문제집을 활용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특성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법조문과 판례 위주로 결론만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한 공부 방법 덕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조문집 및 O/X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 드리고, 100점

을 맞췄다는 생각보다는 70~8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2) 언어논리

제가 수립한 유형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일치부합형 문제의 경우, 선택지를 먼저 읽고 난 뒤 지문의 첫 문장으로 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택지에서 언급되었던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습니다. 이 방식은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찾아 지문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읽는 발췌독과는 다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출제자의 생각을 미리 추론하고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주장(甲乙丙丁/ABCD)이 대립하는 글 유형의 경우, 선택지를 미리 보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그냥 지문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어색한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거나 그 반대를 고르는 문제 유형의 경우,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선택지를 읽지 않고 글을 쭉 읽어내려 갑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내려 가다보면 어색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논리퀴즈형 문제의 경우 어려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처음에는 전부 제끼고 40번까지 풀고, 남는 시간에 돌아와서 풀니다. 단 논리퀴즈형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 득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약화 유형의 경우, 개인적으로 어려운 논리 기호나 이해할 수 없는 교재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유형을 풀 때는 특별한 기술 없이 천천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오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보통 고난도에 해당하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비슷한 고난도 유형의 문제를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우선 계산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저는 비타민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가급적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림산 등을 활용하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자료해석은 PSAT 영역 중 가장 들인 시간에 비례하여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선택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읽고 그에 맞추어 제시된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선지와 오선지를 분리하여 분석해보면, 전형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판단은 언어논리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퀄리티에 한계가 있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고 선택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퀴즈형 문제의 경우, 과감하게 버리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30문제 정도를 정확하게 풀고 나머지는 빈 번호로 밀어서 80점을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쉬운 문제를 확실히 맞힌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심리적 부담도 덜하고 득점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제2차과목

### (1) 경제학

경제학은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기본 개념과 틀을 잡았고, 그 이후에는 주로 연습책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시경제학 연습 (임봉욱 저) 등을 추가로 봤지만, 연습책만으로도 문제의 양과 질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역시 답안 작성이 중요하므로 저는 거의 매일 50점 분량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경제학 고득점의 핵심은 무엇보다 정답 수치를 맞추는 것입니다. 계산과정은 답안에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행동원리 또는 최적화 프로그램만 잘 적어주면 됩니다. 숫자가 틀리면 큰 감점이 있으므로 여러 번 검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습책을 풀 때 효율적 계산 및 검산 방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2) 재정학

재정학은 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목으로서, 역시나 정답 수치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50점 배점 문항이 재정학 내용 중 주로 조세와 노동공급과 관련된 미시경제학 내용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공부를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학은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 역시 필요합니다. 저는 재정학(이준구 저), 공공경제학(임봉욱 저), 트리니티 교재 등을 참고하여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반복하여 암기했습니다.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 이론의 가정, 의미, 한계 등을 선명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주로 연습책 및 모의고사 zip을 활용하였습니다.

### (3) 통계학

통계학 역시 정답 수치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므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내용을 학습한 뒤부터는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및 해외 교과서의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시대고시 및 파이널통계학 교재로 기출문제를 학습한 뒤, 주로 수리통계학 개론(Hogg저)의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외국 교과서는 책에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hegg Study를 구독하여 보았습니다. 통계학은 학원 강의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도 교과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계산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위주여서 크게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 (4) 행정법

행정법은 일반론 암기가 제일 중요하므로 암기 스티디를 통해 주요 개념의 의미, 학설, 판례, 검토를 꼼꼼히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안 포섭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반론을 정확하게 써준 뒤에 이를 바탕으로 사안을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을 최대한 목차화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멍뭉그려 줄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 목차를 통해 논리적 연결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풀이는 주로 3순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암기 스티디 외에 판례 index card를 만들어 반복해서 봄으로써 자투리 시간에 주요 판례 문구를 암기했습니다.

### (5) 행정학

행정학은 오래 공부를 하였지만 끝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수험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 내에 행정학적 글쓰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 키워드 위주의 답안 작성을 지향했습니다. 가급적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을 쓰고, 문장을 시작할 때 학자의 이름과 이론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또한 제시문을 답안에 연계하여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재는 재미있는 행정학을 2회독, 한국행정학(유민봉 저)을 1회독한 뒤, 이전에 합격한 선배의 서브노트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이외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매일 50점씩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 IV. 마무리하며 - 수험생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 1.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공부를 하면서 긍정의 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은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공부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간절히 바라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쏟아 부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 돌아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설령 나중에 가서 안 되더라도 후회 없이 공부했으니 아쉬움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안 되고, 된다고 믿으면 실제로도 됩니다. 긍정의 기운이 사소한 공부 습관과 태도를 좋게 변화시키고 그것들이 모여 결국에는 합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저는 혼자서만 공부하면 잘못된 공부방법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여,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로 활용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 실력·인품 면에서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공부 방법과 전략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병상련의 처지이므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 답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답안을 남에게 보여주고 건전한 비판을 받을 때 비로소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쓴 좋은 답안을 참고하여 모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를 곁에 두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처럼, 여러분도 역시 그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 3.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심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신체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몸살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이라도 걸리면 회복하기까지 며칠은 걸리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는 필수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달리 잠깐 왔다가 금방 회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공부 패션을 무너뜨립니다.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 4.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해 주기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의 점수가 자신의 가

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으며, 점수로 표현될 수도 없습니다. 이를 깜빡 잊고 수험생활을 하면 자신을 지나치게 채찍질하게 됩니다. 자신의 암기가 부족하더라도, 답안 작성을 만족스럽게 못 했더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세요. 공부할 때 스스로에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이 시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스스로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 5. 충분한 수면과 햇빛 쬐기, 그리고 휴식 취하기

사람은 호르몬에 큰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동물 역시 태양의 광주기에 맞추어 호르몬 분비가 크게 변화합니다. 되도록 밤 11시 ~ 아침 6시 사이에는 잠을 청하고, 아침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도 역시 바로 책상 앞에 앉기보다는 10~15분 정도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휴식 역시 중요합니다. 일요일에는 적어도 반나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6.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공부를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 또는 식후 산책, 도립천 걷기 등을 계

획하여 규칙적으로 몸을 꼭 움직여 주세요. 운동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들지 않고 잠시 공부에서 벗어나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고, 강도가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 1~2회씩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한 수험생활이 찾아올 것입니다.

## 7.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기

공부를 하다보면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줄어들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전화통화라도 좋으니,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과 매일 최소 10분 이상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말을 하다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가 잘 되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원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관계의 안정감을 통해 옥시토신 분비 역시 촉진됩니다.

## 8. 현재에 집중하기

사람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면 후회를 하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려면 순간적 찰나인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지키지 못한 공부 계획을 후회하거나,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후회나 불안은 사라지고 공부와 몰아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언제 실력이 느

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깨달은 것은, 공부를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실력이 는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때 순간들이 모여 실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분을 공부하더라도, 책을 1쪽 읽더라도, 문제를 1개 풀더라도 그 순간에 집중을 하면 실력은 오릅니다. 때 순간의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9. 인생의 황금기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행

수험기간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 인생의 암흑기가 아닙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는 것은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 배우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수험기간 역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일부입니다.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 이때를 돌이켜보면, 이 시절 역시도 너무 그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이거나, 지나간 모든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계속 불행하다가, 합격 이후로는 계속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사소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하다보면, 수험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시험의 합격 여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고시공부는 주입식 교육의 정수로서, 창의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주로 단순 암기 능력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 경쟁사회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시험에도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하는 용기와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걱정과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회계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회계사 시험에 떨어진 것이 나중에 행시 도전 및 합격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에서의 합격도 훗날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매우 길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에 떨어져도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찬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한계를 짓지 마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는 선물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설령 결과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더라도, 오히려 더욱 기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합격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